현장취재 병원노련 의료제도 개선 토론회에 다녀와서

병원노련, 의료제도 개선안 제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제도로

사무·금융 노동조합 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산별노조를 선언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이 94년 공동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련은 올 공동교섭의 내용으로 먼저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여 총액임금기준 15% 이상 인상, 직종간,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골자로 한 임금인상안과 10개 부문에 걸친 제도개선 요구를 내걸고 있다.

이에 본보는 병원노련이 마련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빌어 병원노련이 올해 내건 공동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려 한다. (편집자 註)

지난 18일 오후 6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는 병원노련이 주최한 '의료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홍준 인의협(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기획국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몇가지 지적을 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이 도시에 편중됨으로써 도시, 농촌간 격차가 심한 점과 일차의료의사의 부족, 의료제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약하고 의료서비스 시행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보건의료 재정의 취약, 보건의료 정책의 중앙집권화와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고가 의료장비, 식대, 상급병실료 등의 필수적 서비스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산전관리 등의 예방서비스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급여 기간이 연 1백80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병원노련은 공동교섭의 요구조항으로 임금인상과 함께 10개 항목에 걸친 의료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경숙 병원노련 사무차장은 요구안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환자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운영과 의료제도를 이루기 위한 노사합의를 추진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낼 것이며 노사간의 합의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정책적인 내용은 대정부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건국지역 의보노동조합 총연합 위원장 이문희씨가 발제하고 의약품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원남숙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병원노련에서 공도교섭의 요구 조항으로 내건 의료제도개선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개선—의료보험 적용기간 1백80일 제한폐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의료보험 적용 ▲보건의료부문 정부예산 증액—보건의료 부문 정부예산을 전체 예산의 최소 5%이상 확대 ▲환자권리 확보—환자 중심의 의료, 환자의 인격 존중, 진료 전과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 노사동수의 의료서비스 개선 위원회 설치, 인력의 충분한 확보 ▲병원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병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의약품 부조리 척결—약품 처방전을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의약품 공개입찰 구매실시, 의약품 유통관리 5개년 계시제 철회 ▲고용안정 보장—불법 용역을 철폐하고 현 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자 파견법 법제화 폐기 ▲해고 노동자 94년 6월까지 원직 복직 ▲ILO기준에 맞게 노동법 개정—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철폐, 직권중재 제도 철폐, 교원의 노동 3권 인정,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탁아소 설치 (임점미 記者)

기업은 방향전환 해야 한다!

서 평 스테판 슈미트 하이니의 '방향전환'을 읽고

환경에 대한 투자, 단순한 비용만은 아니다 깨끗한 유산 남기려는 기업 자세 필요

기업은 자원을 활용하여 양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소홀했다고 평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기업의 환경투자를 단순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이익의 개념으로 미래 기업의 비전을 제시한 '방향전환'은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유럽에서는 단시일 내에 베스트 셀러가 된 환경담당자 및 기업경영인들의 필독서이다.

기업경영인의 필독서

비록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단한 지적 호기심과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실용적 정신으로, 환경에 대한 업계의 미온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꿔 놓은 스위스의 유수한 기업 총수인 스테판 슈미트 하이니는 세계 20여개국 50인의 기업 지도자들과 인류의 미래 발전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해 일련의 기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개선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을 찾아 1991년 부터 1992년 초까지 쉬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성장 전략과 환경문제를 분야별로 연구하여 RIO회의에 제출한 최종 결실이 '방향전환'이다.

지속적인 발전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제도이며 시장가격에는 반드시 자원 및 환경의 비용을 경제 수단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며 이때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소개했다.

환경 효율화

한편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공해를 유발하는 에너지 사용문제이므로, 에너지 정책은 소비 형태의 변화보다 에너지 자원을 혼합 사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속에 기업의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하는바 제1부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실천해야 할 기업 문제를,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미 환경 효율화 방향으로 전환한 수백개의 회사 중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회사들 외 38개 성공사례를 경영 리더십, 산업별 동업 관계 주주의 협력, 금융, 보다 깨끗한 생산 및 제품,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활용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실제로 환경 효율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강성중 박사는 뉴욕 시립대학 바운트 싸이나이 의과대학 교수로서 20년간 활동하다가 귀국,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지가 최근호를 통해 한국의 모델 연구소라고 극찬한 '한효과학기술원'을 설립, 현재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강성중 박사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경종과 함께 기업의 책임과 배려를 촉구하며 '방향전환'을 옮긴 이유를 서두에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기업은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국민은 기업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빚과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방향전환은 과학기술의 방향전환과 국민 의식구조의 방향전환으로 싸만이 이룰 수 있고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 정 모
(사과대 교수 무역학)

강단시론

최 상 진
(문리대 교수 국문학)

인륜(人倫)과 천륜(天倫)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 의해서 던져진 피투사(被投者)이다. 세상에 던져진 이후에도 나이가 찰 때까지는 거의 자기의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은 피투자 스스로가 자기 가치판단으로 살수 있을 때까지, 피투자를 만든 사람들에게 양육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간의 사회학적 관계를 '천륜'이라 했다.

인륜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천륜이란 우주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는 인륜과 천륜이 있다. 부부간의 관계는 남자 대 여자의 인간적 윤리를 다하면 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인간 대 인간의 우주적 윤리를 다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헤어지면 남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헤어져도 남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이미 우주의 기본 윤리에 묶여 있다. 인륜을 어기면 인벌을 받지만 천륜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

우리 졸업생의 이야기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강남의 보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부임초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한 여교사와 열애 끝에 결혼하였고, 그 이듬해 아기를 낳았다. 그들을 또 그 이듬해 이혼했다. 지금 그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이혼한 아내는 미국 유학을 떠난 지 일년째이다. 그들이 낳은 두살박이 첫먹이는 어리디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삶을 혼자 꾸리기 위해 지금 보육원에 있다.

자기 부모의 얼굴을 알듯 말듯한 나이에 버려진 두살박이 첫먹이는 오늘도 홀로 보육원 방 구석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을 터이다. 두살박이 첫먹이의 처절한 울음은 인간의 기본윤과 우주의 기본윤 조차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이 천벌을 받을 사회에 대한 탄핵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허약한 천륜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사회에 정치적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제적 풍요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부모를 버리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며, 자식을 버리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유기하는 현재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유학 간 여인이 늙마와 대학 강단에 선들, 그 여인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물론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어쩌다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다. 전체에 비해 극히 부분적인 일이니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일이 '오죽하면 버렸겠는가'라 하면서 그저 직무유기 정도의 무책임으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부부들에 의해서 흔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분의 일은 남의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분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에 버려진 아이들이 4천여명에 이르며, 버려진 노인이 1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보육원은 어미 고아원이 아니라 기아원이 된지 오래다. 어미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들은 거의 없고, 주로 미혼모가 버린 아기와 부모들이 이혼해 오갈 곳이 없는 아기들, 심지어는 양부모의 이름까지 정확히 아는 나이찬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요즈음 젊은 이혼 부부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자기 새 삶의 걸림돌이라 하여 서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한다. 결국 갈 때 없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진다.

이 통계 결과가 남의 일인가. 이 무서운 도덕적 잔인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캠퍼스에 불이 오고 있다. 미래의 젊은 아빠 엄마들이 오가고 있다. 믿기지 않은 앞서의 통계를 그대로 빌린다면, 이들의 1/4이 이혼을 할 것이고, 이 중 서로 아이를 맡지 않겠노라며 아이를 버리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참으로 도덕적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나는 지금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인가'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무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겠는가' 우리는 이제 너나할 것 없이 이 척박하고 천박한 사회를 고민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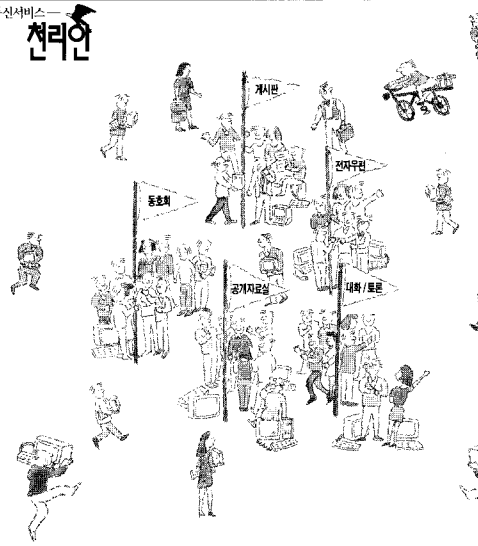
어느새 우리 사회는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덕'이라는 단어를 잊은지 오래다. 개방화·세계화 현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말이 들린다. 물론 몇몇 안되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일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안되는 것이 수백 수천, 수만의 되어 버렸다. 이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곧 수십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세상 일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고, 경제도 사람이 하고, 문화창조도 사람이 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리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경제를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하였던 결과이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오염시켰다.

대학이 해야 할 주요한 책무는 지식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방황하는 지적 유목민들에게 정신적 정착지를 마련시켜 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학원은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키우는 곳은 분명 아니다.

첨단정보통신서비스 — 천리안



천리안을 통해 들어온 리치를 도아 정리대 첨부에서 선택한 리치를 **「다운로드」리치가 이리 잡도**를 선택한 출력물로 수정,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여라, 천리안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으세요

TV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정보와 유행에 둔한것을 못참는 사람은 지금 천리안에 가입하십시오. 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으시고, 친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프트웨어가 무료라구요?

아래 리스트를 보세요. 엄청나 유익하고 귀한 정보들이 많은지 놀라실 겁니다. 이 자료들은 천리안만 가입하시면 언마든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 백신 V155(애빈용), CLEAN, SCAN등 ●**웹심S/W** : DL2, 0001등 ●**업무/가정용** : 명함관리, 가계부, 개인비서관리 프로그램 등 ●**사진/그림** : 그래픽 워크샵, CSHOW 2000A, 각종 사진 등 ●**학습용P/G** : TIME지, 영어단어 22000 등 ●**각종 Utility** : 화일관리, 그래픽 모드달력 P/G 등 ●**윈도우즈/NT용 S/W** : 윈도우용 게임 Utility등 ●**멀티미디어 S/W 및 자료** : 최신 가요자료, 노래방록하기 등 ●**해외자료** : 해외에서 직접 받은 최신 게임 및 Utility등 ●**초보자 추천자료** : 압축파일 Utility, 컴퓨존센터 P/G등 ※총 10만종의 각종 S/W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어느 동호회가 제일 어울릴까?

아래에서 찾아 보세요. 바로 내가 찾던 취미, 내가 관심을 가졌던 동호회가 들쩌없이 있습니다. 어느곳이든지 가입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PC통신** : 초보자의 뜰, 하늘소와 함께, 통신사랑모임 등 ●**컴퓨터** :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료, 바이러스, 전산이론 등 ●**취미/오락** : 게임, 사진, 바둑, 자동차 등 ●**문화** : SF, 문학, 힙합인, TV 시리즈, 시드니 등 ●**예술** : 영화, 연극마당, 애니메이션, 한화창작 등 ●**친목** : 직장인, 안녕, 쥐띠, ROTC, 10대 등 ●**생활/가정** : 한무리방, 주부, 임모부부, 원로통신 등 ●**스포츠/레저** : 볼링, WIND-SKI, 항공스포츠, 여행 등 ●**전문/학술** : 과학고리비, 문화이론연구모임, 전문, 건축, 재테크 등 ●**지역** : 설악, 한라, 서초구 사랑모임, 심사랑 등 ●**캠퍼스**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중고교/기타** : 경기고교, 상문/은광, 중고생, 고교생활 등

천리안 동호회 모집

기존 모임의 운영자나 새로운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천리안 신규동호회를 공개로 모집합니다.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분야 : 기존의 (박기리) 10분야 이상
●지원내용 : 운영비용 무료(DB용/동호회 활동 후원 등
●문의처 : 220-7215, 천리안ID: CENTER3

■전화국에서 나누어 주는 정보통신 안내리플도 천리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콤
통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주구하는 데이콤은 정보사회 선도를 위해 심림한 **순수 국민의 기업입니다.**

종합안내센터 : 220-0220
080-023-0220(데이콤 요금부담 전화)

전국지사 ●부산지사 : 220-0220 ●진남지사 : 510-3221 ●경북지사 : 753-9991 ●대구지사 : 220-3220 ●전북지사 : 226-3220 ●강원지사 : 48-3001 ●서부지역 : 56-0656 **지점들** ■서울·경기 ●김포 : 553-1141 ●성동 : 479-0220 ●강북 : 986-0321 ●강서 : 653-6301 ●서대문 : 737-0220 ●서초 : 592-3443 ●동산 : 702-3041 ●중랑 : 232-6464 ●광명 : 896-3151 ●부천 : 667-1117 ●인천 : 435-0515 ●인천북부 : 517-8088 ●안산 : 83-3202 ●안양 : 252-9061 ●성남 : 732-2110 ●안양 : 41-1601 ●의정부 : 46-4225 ■대구·경북 ●남구 : 476-0700 ●중앙 : 551-8003 ●수성 : 57-4082 ■부산 경남 ●동부 : 243-9500 ●서대 : 52-7201 ●동래 : 791-6188 ■광주·전남 ●광주 : 364-4200 ●여순 : 745-2400 ●목포 : 72-0110 ●전주 : 83-5277 ●군산 : 42-1039 ■대전·충청 ●대전 : 257-1307 ●천안 : 555-6500 ●청주 : 52-9645 ■강원 ●강릉 : 645-1501 ●춘천 : 54-4388 ●원주 : 732-3200 ■제주 ●제주 : 56-7335